



Summer 2014 Vol.67 www.plankorea.or.kr

또 하나의 나,
우리

CONTENTS

- 04 지구촌을 간다 1
방글라데시 미래를 가꾸는 새싹
- 06 아주 특별한 만남 1
후원자와 함께, 친구와 함께 달려요
- 08 우리는 플랜가족
임재혁 이효정 후원자
- 10 지구촌을 간다 2
천 개의 언덕의 땅, 로완다
- 12 아주 특별한 만남 2
아프리카에 깨끗한 식수를 전해요,
에버랜드와 함께하는 아프리카의 꿈
- 14 Plan Report
모든 아이들이 학교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 16 나눔의 행복
현대제철
- 18 Plan Board
- 20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
브라질
- 21 Enjoy Plan
- 22 플랜 소식

작은 실천, 큰 사랑

실천 하나.

후원금은 자동이체 혹은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하기!
신용카드를 재발급하셨다면, 결제정보 수정하기!

▶변경방법 *전화 02-790-5436 *이메일 kno@plankorea.or.kr

실천 둘.

도로명 주소 및 변경된 연락처 등록하기!

▶변경방법 *전화 02-790-5436 *홈페이지→로그인→마이페이지



www.plankorea.or.kr

facebook.com/plankorea twitter.com/plankorea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231 H스퀘어 S동 912호

후원문의 02.790.5436 | 이메일 kno@plankorea.or.kr

통 권 제 67호 | 발행일 2014.6.12 발행인 노영찬 | 발행처 재단법인 플랜 한국위원회



‘또 하나의 나, 우리’는
플랜코리아가 전하는
아이들의 소중한 꿈입니다.

플랜은 UN경제사회이사회에 협의기구로서 75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국제적인 신뢰를 인정받아 온 국제아동후원단체입니다.
종교, 정치, 국적을 초월하여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1억 7천 4백만 명의 어린이와 가족들 및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아동권리보호, 교육, 의료보건, 식수 및 위생, 생계지원, 긴급구호 등의
영역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플랜코리아는 플랜인터내셔널의 한국 지부입니다.



지구촌을 간다 1

방글라데시 미래를 가꾸는 새싹

글·사진_오승수 후원자

Happy



다시 찾은 방글라데시

1994년 후원을 시작한 이후 후원아동을 만나리 총 여섯 번의 방문. 올해는 후원 10년을 기념하는 방문으로 내게는 의미가 크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더니, 그 사이 후원아동이 만 18세가 되어 플랜 프로그램에서 졸업했고, 재작년에는 투틀과 자나풀이라는 예쁜 두 아이를 새롭게 만났다. 이번 일곱 번째 방문은 나에게 어떻게 기억될까. 방글라데시의 수도 다카에 도착하자 언제나 같은 모습의 공항이 나를 편안하게 맞이해주었다.

자나풀과의 만남

작년 방글라데시 방문 시 자나풀은 만났었는데 투틀은 정치적 소요사태로 인해 도로가 차단되어 만나지 못한 채 한국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었다. 올해도 자나풀을 먼저 만나려 가는 길. 도로가 패인 곳이 많고 차가 많이 밀려서 자나풀을 만나려 가는 길은 예년보다 두 배 이상 걸렸다. 먼 나라에서 후원자가 온다고 예쁘게 치장한 자나풀의 모습은 여정의 피곤함을 싹 사라지게 만들었다. 아동자료에 쓰여진 것처럼 자나풀의 집은 흙으로 지어졌으며 초가지붕으로 덮여있었다. 가족은 부모님, 오빠, 남동생 그리고 예쁜 자나풀. 배가 자주 아프다는 자나풀의 얘기를 듣고 걱정이 많이 되었지만 그저 부모님에게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부탁하고 길을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열심히 공부해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거예요.”

둘째 날은 플랜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 안의 유치원을 방문하는 날이다. 유치원에는 만 5세부터 6세 정도의 아이들이 30여 명 정도 모여있었다. 먼 곳에서 온 손님을 맞이해 주려고 아이들은 옹기종기 모여 귀여운 울동을 보여주었고, 나도 답으로 노래를 불러주었다. 유치원 선생님께도 한 곡 청하니 부끄러운 듯 빼다가 나중에는 멋지게 한 곡 뽑아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떠나기 전 학용품을 나눠주면서 “제가 왜 학용품을 나눠줄까요?”라고 질문하니 한 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이 학용품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줄 거예요.”라고 대답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순간이었다.



부끄러운 투틀

올해도 투틀을 만나려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버스표 예매 후 3일을 기다려 투틀의 마을로 들어갈 수 있었다. 투틀은 마을 주민의 초가집 처마 밑에 임시적으로 만들어 놓은 유치원에 다니고 있는데, 이 유치원은 1평 남짓의 아주 작은 공간으로 3~4세의 아이들이 15명 정도 모여 앉아서 공부를 하는 곳이다. 환경도 열악하고 다음 해에는 이 자리가 유지될지 미지수라는 말을 들으니 더욱 마음이 좋지 않다.

투틀은 이제 4살로 말을 조금만 걸면 거의 울기 직전이다. 내가 무서운가 보다. 아이가 사는 지역은 북쪽이라 겨울이면 제법 춥기 때문에 아이에게 따뜻한 모자와 옷을 선물하고, 장난감도 전달했다. 말이 통하지 않아 서먹했지만 장난감을 같이 가지고 놀면서 조금 친해질 수 있었다. 투틀 아버지에게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학교에 들어가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보살펴달라고 부탁했다.

볼라이 바자르 마을의 노래

방문의 마지막 날, 오늘은 학교 두 곳과 방글라데시에 오면 꼭 들려야만 하는 볼라이 바자르 마을로 갈 예정이다. 학교에 도착해 아이들과 칠판에 그리고 싶은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방글라데시 노래와 춤을 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학용품을 나누어주며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한 후 회사 동료들이 전하는 축구공을 교장 선생님께 기증했다. 아이들과의 만남은 항상 빠르게 흘러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학교 아이들이 다음에 꼭 다시 오라고 청해 그려겠다고 대답했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일이라 마음이 쓰인다.

점심을 먹은 후 볼라이 바자르 마을로 향했다. 어김없이 마을에서는 진itchi가 펼쳐지고, 노래와 춤이 흘렀다. 이 마을 사람들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 아이들의 춤에 맞춰 나도 방글라데시 노래를 힘차게 불렀다. 첫 방문 때 조그마했던 소년 소녀들이 어느덧 성년이 되어버린 모습에 세월이 많이 흘렀구나 새삼 생각이 들었다.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나의 마음을 함께 나눠주었다.

플랜 칸사마 지역은 후원 받는 아동이 약 1만 1천명 정도 있으며 플랜 직원은 11명이라고 한다. 11명이 이 마을 저 마을 다니며 만 여행을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플랜 직원들의 노고를 다시 한 번 생각하며 이번 방문을 마무리했다.

미래를 가꾸는 새싹

후원 10주년 기념 방문. 유치원 아이들의 울동, 학생들, 선생님, 마을 사람들의 노래가 하나 둘 떠오른다.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시간이 그립다. 더 많은 시간을 갖고 아이들과 놀고 싶지만 한정된 휴가를 내고 방문하는 것이라 어쩔 수 없이 짧은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쉽고, 혹시라도 아이들에게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사람으로 비춰질까봐 걱정도 된다.

자나풀과 투틀, 학교 아이들, 마을 아이들이 모두 건강하기를, 그들에게 전한 나의 마음이 오래도록 남아있기를 바란다. 그들 모두 열심히 공부해서 방글라데시의 미래를 가꾸는 새싹이 되길 바래본다.

후원자와 함께, 친구와 함께 달려요

사진_포토그래퍼 김상준 / 포토그래퍼 원상희

봄의 시작을 알리던 3월의 마지막 날 플랜코리아가 후원자들과 함께 아주 특별한 만남을 가졌다.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개최된 아디다스 MBC한강마라톤에 후원자와 그 지인들이 함께 참여한 것이다. 플랜코리아가 초대한 후원자와 지인들이 함께 해 더욱 의미 있었던 그날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지구촌 아이들의 희망을 실고 달려요.

새벽부터 몰려든 2만여 명의 마라톤 참가자들 사이로 사전 접수를 통해 모집한 100명의 후원자와 지인들이 플랜코리아 부스를 찾았다. 아디다스 MBC한강마라톤은 매년 2만 여명이 참석하는 대표적인 마라톤 행사로 올해 플랜코리아는 후원자와 지인 100명과 함께 참여했다. 특별히 이날 플랜코리아 후원자들은 지구촌 아동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직접 골라 등에 붙이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지구촌 아동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희망이 전달되기를 소망하며 힘차게 달렸다.

부스를 찾은 후원자와 마라톤 참여자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했다. 플랜코리아에 대한 안내는 물론 Raise Your Hand 포토이벤트, 개발도상국 여자아이 학교 가는 길 체험 등 다채로운 이벤트로 마라톤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에게 개발도상국 아이들의 현실을 알리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완주한 후원자들을 대상으로는 플랜코리아에서 준비한 특별한 나눔 증서가 발급되었다.



친구와 함께 해 The 좋은모임

마라톤 후에는 후원자와 친구가 함께하는 특별한 후원자 모임 “The 좋은모임”이 진행되었다.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걸스데이의 환영 영상으로 시작된 “The 좋은모임”은 플랜 소개 및 결연 아동에게 편지쓰기 이벤트, 플랜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어 후원자에게는 소속감을 더하고 함께 참여한 지인들에게는 아동결연에 대한 이해를 돋는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The 좋은모임에 참여한 한 후원자는 “일반적인 후원자모임에서 벗어나 함께 운동도 하고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어서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지인들에게 자연스럽게 나눔을 권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더욱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며 즐거웠던 하루를 전했다.

함께 땀 흘리고,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한 메시지를 전하고, 친구에게 나눔을 권하며 그렇게 특별했던 후원자 모임은 더욱 특별한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막을 내렸다. 앞으로도 플랜코리아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특색 있는 후원자 모임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임재혁, 이효정 후원자

Plan Family

이를 수, 마을 아, 마을을 이루는 아이라는 예쁜 뜻을 가진 수아.

부르는 것은 물론 뜻까지 착하고 예쁜 이름을 지어준 부모님은 수아의 탄생을 기념해 후원아동을 한 명 추가했다고 했다. 수아가 예쁜 이름에 예쁜 얼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이유다. 이름처럼 따뜻한 마을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 임재혁, 이효정 후원자와 수아의 이야기를 만나보자.

새해결심이나 특별한 날, 의미 있는 날을 기념해 아동을 추가하는 후원자분들을 종종 만나보긴 했는데 오늘은 그중에 가장 기쁜 후원주가 소식인 것 같아요. 수아와 더불어 후원아동까지 한번에 아이가 둘이나 생기셨어요. 수아에게도 가족에게도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 된 것 같아요.

일부러 한 건 아닌데, 아이에게 좋은 선물이 된 것 같아요. 결혼하고 아내가 직장이 가까워져서 자전거로 출퇴근을하게 되었어요. 출퇴근 비용을 아껴 아내가 먼저 아동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저는 다른 곳에 후원하는 게 있어서 마음만 가지고 있다가 수아가 세상에 태어난 것을 기념해 플랜에 후원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니 작고 소소한 일에 더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아내분이 먼저 플랜코리아를 통해 후원을 시작하셨군요. 그래도 다른 단체를 통해 추가로 아동을 후원하실 수도 있는데 특별히 플랜코리아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처음 인터넷을 통해 여러 단체를 알아보고 플랜이 비종교 비정치를 지향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어서 선택하게 되었어요.

어떠한 부분에도 치우치지 않고 아동에 초점을 맞추어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플랜의 선물 정책을 보면, 선물 받지 못하는 아동까지 고려하는게 정말 아동 중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신뢰가 갔어요. 작은 부분일지는 몰라도 작은 부분도 아이들을 위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간혹 다른 단체에서는 후원하고 싶은 아동을 물건처럼 고르는 느낌이 싫었는데 플랜은 전혀 그런 느낌이 없었어요. 후원을 시작하고 보내주신 아동자료를 보니 더욱 신뢰가 갔어요. 믿고 후원을 해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아동을 추가할 때도 고민 없이 플랜을 선택했죠.

임재혁 후원자님이 하시는 일이 기업에서 사회공헌을 담당하는 일이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더욱 결심이 쉬우셨던 거 같은데 어떤신가요? 평소 나눔에 대한 특별한 생각이 있으셨나요?

지금의 직장도 그렇고 이전 직장도 그렇고 사회공헌 쪽 일을 계속해서 그런지 나눔에 대한 생각은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아내도 그런 부분을 잘 이해해주어서 고맙죠.

아무리 부부라지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만나는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게다가 결혼은 현실이라고 들하는데 아무리 나눔에 대한 남편에 생각이 존경스럽고 좋아도 함께 실천하고 그 뜻에 동의하는 것이 아내로서 쉬운 일은 아닐 거 같은데 어떠세요?

아무래도 남편이 이런 쪽 일을 하다보니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 편이에요. 결혼 할 때도 축의금 일부를 기부하기도 했었어요. 항상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나눔을 항상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에요. 가치관이 비슷해서 큰 의견 차이는 없었어요. 아직까지는 큰 금액을 기부하지는 않아서 어려움도 없고요(웃음). 마음은 늘 더 하고 싶은데 더 하지 못해서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더 많아요.

수아가 참 예쁘고 순한 모습이 두 분의 마음씨를 닮은 것 같아요. 수아가 아직 두 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선물해준 언니 오빠 있다는 거 알고 있나요?

두 아이 사진을 높은 곳에 올려 놓았는데, 수아가 아침에 일어나면 사진을 가리키면서 항상 좋아해요. 사진을 잡고 물고 뜯어서 모서리가 닳았어요. 수아만의 애정표현이죠. 수아의 이름이 한자로 이를 수, 마을 아, 자를 써서 마을을 이루는 아이라는 뜻이에요. 거창한 것은 아니지만 아이가 살아가는 마을에 혼자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수아가 좀더 크면 같은 권리 가지고 있는 아이들인데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누리지 못하는 아이들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수아가 얼마나 운이 좋은 아이인지 그래서 꼭 함께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 해주고 싶어요.

혹시 둘째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그때도 의미 있게 플랜코리아를 통해 아동 후원을 추가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뜻 깊은 의미로 아동 추가 후원을 하셨으니 나중에 온 가족이 후원아동을 만나보러 가는 것도 더욱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아직 먼 훗날의 일이지만 계획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당연하죠. 이번엔 수아 이름으로 후원을 해볼까 해요. 수아가 동생의 후원아동을 후원하는 것으로 해도 좋을 것 같아요. 나라에서 수아 양육비가 나오거든요. 그걸로 수아가 동생 후원 아동을 도와주면 동생에게 큰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아직 아이가 어려서 아동방문은 지금 생각도 못하고 있지만, 아이에게도 좋은 시간이 될 것 같고, 꼭 한번 만나보고 싶기도 해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주면 참 좋아할 것 같고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수아와 함께 두 분의 후원아동, 라니와 유위마나에 대한 애정도 각별하실 것 같아요. 수아에게 바라는 것처럼 두 아동에게도 바라는 점이나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가요?

편지를 못써서 너무 미안해요. 얼마 전에도 자기네 집에서는 소를 키운다면 우리도 소를 키우냐고 묻는 편지가 왔었는데, 답변을 못해서 계속 미안해요. 매달 내는 3만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눔이란 것이 파급되는 영향력이 아주 큰 것 같아요. 아동사진을 받고 나서 저도 모르게 주변에 굉장히 많이 이야기 했던 것 같아요. 계속 생각이 나고 사진도 많이 들고 다녔어요. 작은 마음이지만 많은 분들이 같은 생각을 가지고 따뜻한 마을을 이루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구촌을 간다 2

천 개의 언덕의 땅, 르완다

글·사진_대외협력팀 유하늘

동아프리카의 우간다, 브룬디, 탄자니아,
그리고 콩고 민주공화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작은 나라.

3월의 끝자락, 긴 여정으로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부터 살짝 지쳐있던 나를 맞이한 르완다는 생각과는 사뭇 다른 모습의 평온함과 상쾌하기까지 한 날씨로 기분 좋은 첫 만남의 인상을 주었다. 까다로운 입국 수속도 없이 소박하기 그지 없는 키갈리 국제공항을 빠져나와 시내로 이동하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도시는 내가 방금 도착한 이곳이 아프리카가 아닌 듯한 착각을 불러 일으켰다. 여느 아프리카 국가들과 다른 느낌의 청량한 공기,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는 길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뭔지 모를 느낌의 차분함과 온순함. 누구는 키갈리에 대해 유럽의 작은 마을 같다고도 한다. 남한 면적의 $\frac{1}{4}$ 밖에 안되는 국토의 대부분이 구릉지대로 이루어져 있어 천 개의 언덕의 땅으로 불리는 르완다는 말 그대로 1,540m 고도에 위치한 덕분에 파란 하늘과 더 가까이 달아있는 것 같은 그런 곳이다.

세계 최초로 환경 보호를 위해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고, 전세계에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곳, 20년 전의 끔찍했던 인종대학살이라는 비극의 역사를 씻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정부 차원의 부단한 노력과 규정, 그리고 안정과 변화를 갈망하는 국민들에 의해 예외 없이 그 규정들이 지켜지는 질서 정연한 나라 르완다는 느리지만 꾸준한 경제성장을 보이며 발전을 꿈꾸고 있다. 그 중에서도 교육 분야에 대한 르완다 정부의 높은 관심에 맞춰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지금, 현대자동차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원한 청소년 직업기술교육센터가 완공되어 이곳을 찾았다.

‘천 개의 언덕의 나라’라는 별칭답게 수많은 언덕과 그 안에 조밀하게 모여있는 집들



원공식 행사

루보나 직업기술교육센터

르완다는 인종대학살로 인해 인구의 10%가 사망하였고 그 영향으로 현재 16~35세의 젊은 연령층이 르완다 인구의 40% 이상을 차지한다. 따라서 이들의 경제활동 참여는 르완다의 현재 그리고 미래의 경제적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청(소)년층에 대한 교육, 특히 직업기술교육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현대자동차가 지원한 르보나 직업기술교육센터는 키갈리에서 약 한 시간 남짓 거리의 동부 주, 르와마가나 지역에 위치해 있다. 키갈리를 출발한 차는 어느새 도시를 벗어난 듯한 단조로운 풍경으로 접어들어 울퉁불퉁한 언덕길을 따라 달려가 이미 도착하기 전부터 시끌벅적한 원공식 행사장인 센터에 도착했다. 교사와 지역 주민들, 여러 분야의 정부 관계자들, 현대자동차, 플랜트와 같은 참석자들이 자리를 하고, 행사의 시작과 함께 입장 행진을 한 학생들은 각자 배우고 있는 기술 과정에 따라 복장과 도구들을 갖추고 근엄한 표정으로 들어섰다. 학생들의 재치 있는 행진에 큰 박수와 환한 미소로 화답하며 우리 모두의 축제와 같은 원공식이 진행되었다.

현대자동차의 지원으로 새롭게 조성된 교육 환경은 목공, 재봉, 케이터링, 건축 기술 등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에게 교실과 작업장, 강당, 그리고 기자재를 비롯한 화장실의 건립과 또한 교육 분야별 인턴십과 현장 방문 학습, 소규모 창업 교육, 교사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했다. 르보나 교육센터에 지원된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마을은 물론 르와마가나 지역과 동부 주의 많은 학생들과 부모들의 관심을 받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이 교육을 받게 될 첫걸음을 떼었다고 생각하며, 센터의 학생들과 교사, 학부모, 지역정부 대표 모두가 입을 모아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르와마가나 지역의 유일한 공립 직업기술교육센터로서 교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한 형편의 많은 청소년과 청년들이 이곳에서 익힌 기술을 가지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강한 믿음과 희망이 있었다.



르완다 정부는 인종학살 20주년을 맞아 ‘퀴부카’라는 이름 – 르완다 말로 “기억하다”라는 의미 –의 추모행사를 가졌다. 젊은이들은 역사를 기억하고 지난 날의 비극의 의미를 바로 알아 화해를 통해 새롭게 거듭나자는 르완다 국민의 바람과 함께, 현대자동차와 플랜트 뿐만 작은 믿음과 희망의 씨앗이 아픔을 딛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그곳의 젊은이들에게 그들이 혼자가 아님,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의 존중을 위해 우리의 관심과 지원이 그들에게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 무엇이 될 수 있기를 바래본다.

아프리카에 깨끗한 식수를 전해요

에버랜드와 함께하는 아프리카의 꿈

사진_포토그래퍼 김상준 / 포토그래퍼 원상희

작년부터 플랜코리아와 함께 아프리카 어린이들의 꿈을 위해 함께 해온
삼성 에버랜드에서 '로스트밸리' 1주년을 기념해 더욱 특별한 캠페인을 개최했다.

식수가 부족하거나 오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아프리카 어린이를 위해 우물을 건립해 주는 '아프리카의 꿈' 캠페인을 개최한 것이다. '아프리카의 꿈' 캠페인은 삼성 에버랜드가 생태형 사파리인 '로스트밸리' 오픈 1주년을 맞아 아프리카 아이들의 꿈과 식수지원을 위해 마련된 행사다.

UN 보고에 따르면 아프리카에서 매일 5세 미만의 어린이 1,400명이 오염된 물을 마시고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하라 이남에 위치한 아프리카 국가의 대부분은 전반적으로 물이 부족하며 안전한 식수를 구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아프리카의 국가 대부분은 국민들의 40% 가 안전한 식수에 접근하지 못해 수인성 질병으로 고통 받고 있다. 에버랜드와 플랜코리아는 이 같은 안타까운 현실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로스트밸리 입구에 높이 90cm, 지름 1m 크기의 '생명의 우물' 모형을 설치하고, 우물 건립을 위한 모금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생명의 우물' 모금함 오픈을 알리기 위해 어린이날을 비롯해 약 3주간 캠페인을 펼쳤다. 캠페인은 참여하는 방법도 간단해 큰 호응을 얻었다. 생명의 우물 모금함에 동전을 던져 모금하면 채워진 동전은 아프리카 우물 건립에 쓰인다.

 EVERLAND RESORT



로스트밸리를 찾은 방문객들과 '생명의 우물 모금'에 참여하는 방문객들에게 재미와 의미를 더해주기 위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이벤트도 마련했다. 아프리카 아동 사진을 전시해 아프리카의 실상을 생생하게 전달하였고, 페이스 페인팅, 희망동전 붙이기, 풍선배포 등의 다채로운 이벤트를 함께 진행해 방문객의 참여를 유도했다. 또 실제 아프리카 아동이 매일 길어오는 무개의 물동이를 들고 걸어보는 체험존을 마련해 아동이 매일 겪고 있을 고단함을 짐시나마 느껴보고 우물의 소중함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물을 얻기 위해 우물에서 펌프질 하는 아프리카 아동의 사진 옆에 서서 펌프체험을 해보는 기회도 마련했다. 캠페인 마지막 날에는 플랜코리아 홍보대사 걸스데이 유라와 방송인 오상진도 참여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우물 건립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방문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속에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아프리카에 우물을 건립할 수 있는 금액이 모금되었다. 후원금은 플랜코리아를 통해 말리, 세네갈 등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아프리카 현지 마을의 우물 건립에 사용될 계획이다. 플랜코리아는 우물 건립을 통해 안전한 식수를 마실 수 있도록 지원할 뿐만 아니라 위생교육을 통해 다양한 수인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다.



모든 아이들이 학교로 가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모든 아이들은 교육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교육은 빈곤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하지만 전세계 1억 2천 6백 만 명의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으며
이 중 6천 5백만 명은 여자아이들이다. 학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중 2억
5천만 명은 학교에 다니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5년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에서
제시한 보편적 초등교육은 이 수치대로라면 앞으로 70년 후에나 달성된다.
2015년을 1년 앞둔 현재, 세계는 지금 '교육 위기' 상태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일 세계 지도자, 정부 그리고 시민들이 아무런 조치
를 취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보편적 초등교
육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 및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지지와 활동,
노력이 필요하다.

did you know?
**In the world,
in 5 adolescent girls
are out of school**

1 아프리카 어린이날 행사에 참석할 시에라리온 대표, 여자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손을 높이
들다. 2 Countdown to 2015 정상회담에서 연설하고 있는 UN사무총장 반기문과 UN세
계교육특사 고든 브라운 3 애파도르 13세 소녀 셀리아의 꿈 (애파도르 'BIAAG 소녀들
의 편지' 행사 출품작) 4 불리비아에서 열린 Because I am a Girl 행사에서 자신의 목
소리를 내고 있는 여성 5 청소년권리옹호 툴킷을 들고 있는 글로벌 청소년 대사들
6 UN 총회에서 자신이 받고 싶은 교육에 대해 이야기하는 청소년들



전세계 아이들의 교육권을 위한 플랜의 2014 상반기 활동

유엔 여성지위위원회

2014년 3월 뉴욕 유엔 본부에서는 제 58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가 열렸다. 올해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이행에 있어 여성과 여아 관련 도전 과제와 성과'를 주요 의제로 다루고 2주간 논의를 펼쳤다. 플랜의 청소년 대표들은 이 행사의 주요쟁점인 여자아이들의 교육, 조혼, 도시에서의 여자아이들의 안전에 관한 회의에 참여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플랜은 양성 평등 확립에 대한 독립적인 목표를 세운다는 유엔의 제안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고, 단순히 초등 교육 기회의 확대를 넘어 생활 주기 교육 방식으로 조절을 비롯 교육 정책 추세에도 박수를 보냈다.

청소년권리옹호 툴킷 "우리가 원하는 교육"

플랜은 A World at School,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Global Education First Initiative)의 청소년 그룹과 함께 UNGEI(The United Nations Girls' Education Initiative)와 UNICEF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권리옹호 툴킷- 우리가 원하는 교육'을 발간하고, 4월 10일 UN사무총장과 UN세계교육특사가 주재하는 Countdown to 2015에서 처음 선보였다. 청소년들은 툴킷을 통해 스스로 교육에 대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나아가, 전세계 청소년들이 교육권리옹호 캠페인 활동을 구축하는데 툴킷이 도움이 될 것이다. 청소년권리옹호 툴킷이 하나의 계획에서 그치지 않도록 모든 파트너들은 서로 협력해야 한다.

전세계 청소년들이 한자리에

아프리카 아동의 52%는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고, 여자아이 5명 중 4명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기회조차 없다. 이런 사하라 사막 이남지역의 실태는 아프리카가 교육 위기의 정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교육 위기 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금전적 지원 확보가 필요하다.

6월 16일 아프리카 어린이날 맞아 에티오피아의 아디스아바바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린다. 아프리카 너머의 청소년들이 아프리카 청소년들과 함께 교육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청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인다. 플랜에서도 케냐, 라이베리아, 이집트, 부르키나 파소, 말라위, 에티오피아, 시에라리온, 노르웨이, 독일 등 플랜의 청소년 대표들이 이 자리에 참석해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청소년들은 이 자리에서 교육 지원을 14.4%에서 20%로 확대하도록 정부에 요청하는 한편 말랄라 유사이사프의 생일에 열린 청소년 연합모임에서 UN이 지지한 "우리가 원하는 교육" 결의안을 채택하도록 아프리카연합에 요청할 계획이다.

플랜은 아프리카 어린이날 행사에서 교육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교육을 받은 후 여자아이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서 알릴 것이다. 또한 청소년들이 교육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청소년들의 주체적 역할 확보를 요구할 것이다.

변화를 위한 10일

6월 26일 브뤼셀, 전세계 정부로부터 교육 권리 보장을 약속 받기 위해 교육 서약 회의가 열린다. 국가마다 서약 내용은 다소 다를 수 있지만 교육에 대한 금전 지원 확대를 약속하는 정부가 생길 것이다. 6월 16일 아프리카 청소년 모임부터 10일 후인 브뤼셀 서약 회의까지 플랜은 여자아이들의 교육 지원 증강과 양질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 인식 고취를 위해 '10일간의 액션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펼칠 예정이다.

모든 아이들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은 삶을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
모든 아이들이 학교로 가야 할 시간이다.



나눔의 행복

현대제철 사회공헌활동 소개

지역사회와 함께

아름다운 세상을 꿈꿔요!

현대제철이 첫 해외 사회공헌사업으로서

플랜코리아와 함께 진행하는 미얀마 만달레이 지역 개발사업의 첫 삽을 뜯다.

심각한 가뭄 지역 중 하나인 만달레이 지역에 '식수사업을 기반으로 한 따웅비라이 지역 개발사업'을 지원하기로 하고, 지난 5월 15일 사업의 일환으로 건립될 커뮤니티 센터의 기공식을 가졌다. 기본적인 삶의 수준을 위한 필수적 조건인 깨끗한 식수 및 위생 환경에 있어서 큰 어려움에 있는 지역사회와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현대제철은 순수한 사회공헌의 의미를 담아 3개년 사업의 그 첫 시작의 자리에 함께 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들에게 안전한 식수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이 진행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자립 역량 강화와 지원된 시설물들의 지속성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조직과 교육, 생계지원활동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4,2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는 미얀마 만달레이 주 따웅비라이 구 지역은 식수접근률이 낮아 주민들 대부분이 깨끗한 물을 얻기 어려운 환경 속에 살고 있으며, 도심 접근성이 낮고 중앙 정부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낮은 가계 소득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플랜코리아와 현대제철은 사업 지역 내 안정된 수원의 개발과 공급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2016년까지 농업기술 및 직업기술 훈련 지원, 새마을운동위원회 설립 및 활동 지원, 마을 식수위원회 구성 및 교육 등 지역사회의 식수위생과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을 펼쳐 지속적인 수익 증대 및 지역 역량을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사회공헌 중점사업]

현대제철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을 바라보는 장기 계획을 세우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사회를 위해 동반성장 할 수 있는 기업시민으로 정착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펼치고 있다.

희망의 집수리 · 주택에너지 효율사업

지역사회의 에너지 절감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200만 명의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 시켜 빈곤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준다. 단열과 창호 교체를 실시하고 사회적 일자리와 연계하여 시공할 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 CO₂ 배출량 감소에 기여하고 있어 복지-환경-고용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가정에너지 코디네이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를 위해 주부들과 함께 대기전력 절약캠페인을 진행 중이다. 노후된 아파트 단지에 에너지코디네이터가 월 1회 가정방문을 통해 대기전력을 측정하고 절약방법을 안내하며 고효율등 교체 및 온습도계 지원 등 에너지 물품을 지원한다. 또한 코디네이터에게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초록수비대-어린이 환경교실

2007년부터 미래세대의 주역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학교, 가정, 생활 속 환경지킴이 양성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다. 환경교육은 어린이와 함께 부모와 교사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당 교사 사전 교육 및 가족환경캠프를 진행하고 있다.



해피에스 대학생 봉사단

대학생들에게 이웃을 생각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나눔 인재 양성 프로그램인 해피에스 대학생 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2009년부터 매년 전국의 대학생 100명을 선발하여 '꿈의 기행'이라는 컨셉으로 소외지역 초등학교 환경개선 및 지역주민 초청 문화공연, 연탄나누기, 직업체험 등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활동]

현대제철은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고, 지역 주민과의 유대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 노력한다. 명절 이웃사랑 선물 나누기, 전통시장 활성화 캠페인, 1팀 1촌 자매결연, 긴급재해 구호활동, 나눔 장터, 주니어 공학교실 및 장학금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헌혈캠페인, 매칭그란츠 캠페인, 미소금융재단 지원, 종이컵 없는 회사 만들기 캠페인, 사회적 기업 현장 연구자 육성 등의 활동을 통해 나눔 문화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 활발히 활동 중이다.

Plan Board 1

올 여름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The 좋은 여행

6

여섯번째

플랜의 활동 모습이 궁금하다면…

나눔의 기쁨을 현지에서 직접 체험하고 싶다면…

나의 후원 아동을 만나러 갈 수 있다면…

2014년 여름, 여섯 번째 “The 좋은 여행”에 참가할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후원자 여러분과 함께 플랜이 활동하는 지역을 직접 방문하고, 후원 아동을 만나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동 방문을 망설이셨던 분들, 플랜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궁금하셨던 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역사 도시 호이안과
다낭 문화탐방 및 참가비의 일정 금액을 프로젝트 사업 후원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기 간	2014.8.11 ~ 2014.8.16 (4박 6일)
지 역	베트남 광응아이 (Quang Ngai), 다낭 (Da Nang)
모집 인원	플랜코리아 후원자 및 가족 20명 *베트남 아동을 후원하고 있지 않으셔도 참가 가능합니다. / *가족은 4인 이하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모집 기간	2014년 6월 10일 ~ 7월 6일 (선착순 마감) *7~8월은 성수기로 비행기 좌석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빠른 신청을 부탁 드립니다.
방문 내용	광응아이 지역 : 플랜사무소 방문, 후원아동 및 마을 방문, 봉사활동, 지역 문화 탐방 다낭 지역 : 문화 유적 탐방
비 용	약 160만원 (항공료, 숙박비, 식비, 현지 교통비, 프로젝트 후원금, 프로그램 진행비 및 관광, 여행자 보험 등 포함)
신청 방법	1.참가신청서(홈페이지 공지사항 다운로드) 작성 2.여권 스캔본과 함께 이메일 (kno@plankorea.or.kr)로 접수 3.신청비 20만원 입금 → 신청 완료 *신청 완료 후 전화 연락 드립니다.
문 의	02-790-5436 (내선 411 / 월~금 오전 9시~오후 6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현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행사 일정과 경비는 현지사정 및 신청인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후원자 스토리 쓰고 베트남 가자!

The 좋은 여행과 함께하는 후원자 스토리 공모전

아동후원을 통해 일어난 변화, 후원을 시작한 동기, 후원에 대한 생각, 후원아동 사랑 등
플랜코리아 후원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최고의 스토리를 들려주시는 분께는
베트남으로 The 좋은 여행을 함께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방법 7월 15일까지 A4 2페이지 분량으로 자유롭게 서술 후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planpeople@plankorea.or.kr)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확인해주세요.



우리가족을 소개합니다 2014

어린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푸르른 계절,
지구촌 저편에 사는 또 한 명의 가족,
후원아동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편지를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후원아동에게 편지 쓰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방법 01 후원아동에게 후원자님의 가족을 소개해주세요!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메시지와 함께 사진을 올리면,
예쁜 편지지에 담아 사진과 함께 후원아동에게 전달됩니다.

플랜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 이벤트
메뉴 ▶ 우가소
2014 ▶ 로그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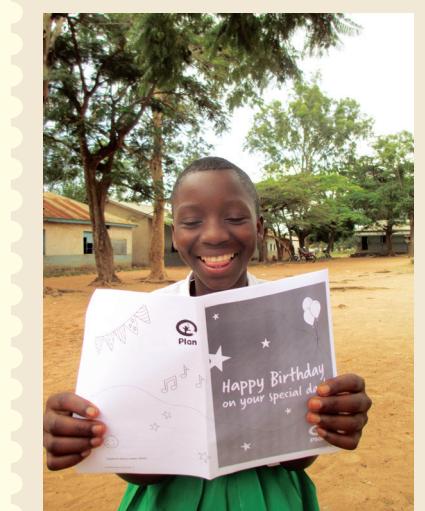
방법 02 아기자기한 디자인에 4가지 꽃말이 새겨진 일러스트 엽서로 후원아동에게 사랑을 전해보세요!

플랜샵
홈페이지
접속 ▶ 후원아동선물
메뉴 ▶ 꽃말엽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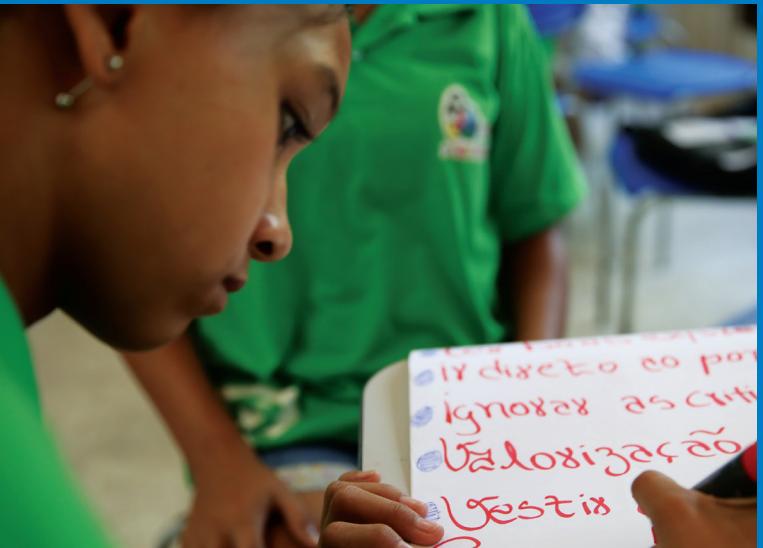
후원자님께서 후원아동에게 보낸 따뜻한 편지,
우가소 'The 좋은 편지'를 함께 나눠보아요.
우가소 2014의 따뜻한 편지를 선정해 후원자님께는 플랜 아이스템블러를,
후원자님의 후원아동에게는 플랜 스티커 세트를 보내드립니다.

www.plankorea.or.kr



플랜, 세계를 걸어가다

브라질 (Brazil)



주요활동

학대, 학취, 폭력으로부터 아동보호 아동의 참여, 권리보호, 자립 및 민주주의 가치관 양성을 통해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또한 아동보호에 필요한 공공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4년 월드컵을 맞아 아동들과 청소년들이 폭력과 성 학취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이를 방지하기 위한 'Countdown to 2014 World Cup'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학교를 방문해 아이들에게 그들의 권리에 대해 교육하고, 성 학취와 학대, 폭력에 'no'라고 말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동시에 여자아이들로 구성된 축구팀을 구성해 자아 존중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생계를 위해 매춘으로 빠져들지 않도록 여자아이들을 위한 건실한 일자리 제공, 월드컵이 끝난 후 경기장을 직업 훈련 센터로 만들기 위한 추진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6세 미만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보건서비스 수준 향상, 성과 생식에 관한 건강증진과 관련하여 6세 미만의 아동이 적절한 가정환경과 주변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치 남아메리카 대륙 중앙

수도 브라질리아

언어 포르투갈어

면적 8,514,877km²

인구 201,009,622 (2013년)

기후 연중 30°C 전후인 열대성 기후

종교 로마가톨릭교(73.6%), 개신교(15.4%)



정식명칭은 브라질연방공화국(Federative Republic of Brazil)이다. 칠레, 에콰도르를 제외한 모든 남아메리카 제국과 국경선을 접할 만큼 남아메리카에서 가장 넓고, 세계에서도 러시아·캐나다·미국·중국에 이어 제5위에 이를 만큼 넓은 면적을 자랑한다. 북부에는 세계 최대의 수량인 6,300km의 아마존강이 흐르며 강 유역에는 전국토의 45%에 해당하는 광대한 저지대가 펼쳐져 있다. 1935년부터 우파정권의 군사독재가 계속되다가 2002년 룰라(Luiz Inacio Lula da Silva) 대통령이 당선되며 브라질 최초의 야당 좌파 정권이 출범하였다. 사탕수수·커피 등 특정 농산물 생산이나 나라의 경제를 지탱하고 있으며, 아직도 유럽 및 미국에 경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행정구역은 26개주(estado), 1개 연방구(distrito federal)로 이루어져 있다.

플랜, 브라질에서는?

플랜은 1997년부터 브라질에서 활동을 해왔으며, 현재는 50여 개 프로젝트를 통해 7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고 있다.

활동적이고 건강한 교육환경 마련 교수법 교사 연수, 학교시설 정비, 교재 제공 등을 통해 아동이 교육에 흥미를 가지고 충실히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생계 지원 건강한 식사 및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촉구하며 각 가정을 대상으로 유기재배 방식 및 적절한 농업용수 이용법 훈련, 위생에 관한 지식 보급, 협동조합과 상호부조네트워크 설립 보조 등을 실시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생계를 유지 및 향상 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하고 있다.

커뮤니티 주도의 개발 각 지역의 성인 및 연장자를 대상으로 아동과 소외된 계층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의식 제고 캠페인을 시행하고 어린이 모임을 조직해서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여 커뮤니티 전체에서 개발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돋고 있다.

Brazil

'또 하나의 나, 우리'를 읽는 또 하나의 재미,
Enjoy Plan!

Enjoy Plan

틀린그림찾기



* 지난 호 정답

참여방법

✓ 틀린 그림을 (7개)
눈에 띄게 표시한 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찰칵!

✓ 플랜코리아 페이스북
(www.facebook.com/plan.kr)
Enjoy Plan 이벤트 페이지에
후원자 번호와 함께
사진을 업로드 한다!



QR코드를 찍으면,
이벤트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정답 및 당첨자는
기호로 소식지에 게재됩니다.



봄호 이벤트 당첨자

강종호 / 김영아 / 안주연 / 이수연 / 하지애

-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당첨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캄보디아 착공식

플랜코리아와 현대자동차, 한국국제협력단(KOICA, 이하 코이카)이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 센터인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캄보디아'의 착공식을 가졌다. 현대·코이카 드림센터, 캄보디아는 캄보디아 프놈펜 지역 내 자동차 정비 기술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24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기술 교육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기관이다. 다양한 교육 커리큘럼으로 청소년들의 꿈을 키워주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며 일반과정에 현대차 특화과정을 추가해 보다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한다. 착공식에 참석한 플랜코리아 이상주 대표는 "새롭게 설립되는 센터에서 캄보디아 청소년들이 새로운 꿈을 가지고 더 큰 세상에 도전하는 인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플랜코리아와 현대자동차, 코이카가 함께 진행하는 이 사업은 가나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다.



번역 어플리케이션 플리토, 앱 적립 포인트로 태국 소수민족 교육 지원

번역 어플리케이션 플리토와 플랜코리아가 MOU를 체결하고 빈곤국가 아동의 교육지원 사업을 펼친다. 이번 MOU 체결은 플랜코리아와 플리토의 상호 협력을 위한 전략적 제휴로, 이를 통해 전세계 빈곤이나 부족한 교육 시설로 인해 기본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170여 개국 300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플리토 어플리케이션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적립한 포인트를 기부하는 모바일 모금 방식으로 진행하며, 모금된 후원금은 플랜코리아를 통해 '태국 소수민족 모Ken족 아동 교육지원 사업'에 지원된다. 플리토 이정수 대표는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들 이 재능 기부를 통해 어린이 후원은 물론이고 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라며 "이번 MOU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전했다.



'말랄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말랄라에게 보내는 희망 메시지 '말랄라,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가 출판되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2012년 여자아이들의 교육권을 주장해 탈레반에게 총격을 당한 파키스탄 소녀로 2013년에는 최연소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다. 이 책은 플랜인터내셔널이 제작한 짧은 영상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말랄라의 신념과 용기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책의 저자 플랜캐나다 대표 로즈메리 맥카니는 "이 책을 통해 여자아이들이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자아이들의 교육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책 발간을 기념하며 플랜코리아에서는 김성령, 오상진 등 홍보대사들이 추천평을 전했고, SNS를 통해 걸스데이 사인북 증정, 나눔팔찌 증정 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플랜코리아 전미선 홍보대사, 삼성전자 임직원 대상 나눔 특강 진행

삼성전자 임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전미선 플랜코리아 홍보대사가 아동결연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고 참여를 독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전미선 홍보대사는 인도네시아 렘방에서 만난 두 명의 아동, 태어날 때부터 청각장애와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는 버스코로와 아빠를 여의고 노모의 집안일을 돋느라 학업을 포기해야만 했던 프리안티의 이야기를 소개했다. 더불어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싶어 플랜코리아와 오랜 논의 후 결정해 진행중인 태국 ECCD센터 건립에 대한 이야기도 전했다. 현재 전미선 홍보대사는 ECCD센터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며, 올 9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전미선 홍보대사는 "세계 곳곳에서는 장애로 인해 교육의 기회에서 소외되고, 집안의 생계를 위해 학업을 포기해야 하는 아이들이 많다."며 "해외 아동결연을 통해 아동들의 삶에 밝은 희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샘터봉사회, 베트남 영유아보육지원시설 건립 지원금 전달

삼성그룹 임직원 부인 봉사회인 샘터봉사회가 플랜코리아를 통해 지원하는 베트남 영유아보육지원사업을 위한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샘터봉사회는 지원 사업을 통해 당한 파키스탄 소녀로 2013년에는 최연소로 노벨 평화상 후보에까지 올랐다. 이 책은 플랜인터내셔널이 제작한 짧은 영상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으며, 말랄라의 신념과 용기가 전 세계 아이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책의 저자 플랜캐나다 대표 로즈메리 맥카니는 "이 책을 통해 여자아이들이 자신의 무한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여자아이들의 교육권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책 발간을 기념하며 플랜코리아에서는 김성령, 오상진 등 홍보대사들이 추천평을 전했고, SNS를 통해 걸스데이 사인북 증정, 나눔팔찌 증정 등의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건국고등학교, 캄보디아에 우물 선물

부산에 위치한 건국고등학교 학생회가 캄보디아 우물건립을 위해 플랜코리아와 협약식을 가졌다. 건국고등학교가 우물을 선물할 씨엠립 지역은 비위생적인 식수, 위생, 청결상태의 부족 등으로 인해 3~5세 아이들의 수인성 전염병 감염률이 높은 곳이다. 이에 우물을 건립하여 어린이들을 포함한 마을 사람들이 깨끗한 식수를 확보하고 수질검사, 우물 관리 위원회 조직 및 교육을 진행하여 지역 내 식수 환경을 개선시킬 예정이다. 건국고등학교 학생회는 2011년부터 매년 '더불어 사는 사회' 프로젝트를 진행해 학생회를 중심으로 뜻이 있는 학생들이 모금한 후원금으로 플랜코리아를 통해 캄보디아 우물을 비롯해 The 좋은 선물을 지원해 지구촌 어린이들을 돋고 있다. 특히 올해는 프로젝트를 만든 선배들이 졸업했지만 후배들이 계속해서 그 뜻을 이어나가 의미를 더하고 있다.



플랜, 소녀 대표 4인과 함께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의 주역이 되다.

2014년 3월 플랜의 소녀 대표들이 자국 여성의 삶의 실태를 알리고,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엔 단상을 밟았다. 58회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에 참석한 플랜의 소녀 대표들은 교육의 중요성과 조흔의 영향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소녀 대표 중 한 명인 말라리의 악카사는 공개토론회에 참가해 성을 기반으로 한 폭력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소개해 주목을 받았다. 일정이 끝난 후 "여자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배우며 제 삶은 변했어요. 플랜을 통해 좋은 연설가가 되는 법과 여자아이들의 대변 할 수 있는 법도 배웠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받았고 여러 롤모델을 찾았어요. 앞으로는 우리나라에서 조흔을 막는 노력에 힘을 보탤거예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Because I am a Girl을 통해 여자 아이들의 권리옹호에 힘써왔던 플랜은 이 회의에서 세계 모든 여성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4월 25일 세계 말라리아의 날 말라리아와의 싸움

전 세계적으로 66만 명의 사람들이 매년 말라리아로 인해 사망한다. 대개는 아프리카에서 특히 사하라 이남 지역의 아프리카에서 말라리아 발병과 사망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4월 25일 세계 말라리아의 날을 맞이하여 플랜은 아프리카의 위험에 처한 아이들 특히 5세 미만의 아이들과 임신한 여성들의 말라리아 예방과 치료를 돋기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플랜은 지난 3년간 부르키나파소와 카메룬에 1천 2백만 개의 침대 모기장을 배포했고, 서아프리카에서 2만 7천명의 직원들과 3천 여명의 지역사회 보건 전문가들에게 말라리아에 대한 교육과 말라리아 근절을 위한 연수를 실시하였다. 서아프리카 플랜 지부장 안다마 코리발리는 "최근 말라리아와의 싸움에서 큰 호전이 있었다. 예방할 수 있는 말라리아로 인한 죽음을 막아야만 한다."라고 더 많은 지원을 청했다.



플랜과 CBRE, 시에라리온 교육을 위해 파트너쉽을 맺다.

세계 최대 부동산 서비스 및 투자 기업 CBRE가 시에라리온의 13만 5천 명의 어린이들, 특히 여자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플랜과 함께한다. 전 세계적으로 6천 5백만 명의 여자아이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시에라리온에서는 여자아이들의 73%가 9세가 되면 학교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다. 플랜은 CBRE EMEA(유럽, 중동, 아프리카)와의 파트너쉽을 통해 3년간 지역개발 프로젝트를 시행한다. 시에라리온 다섯 지역 내 780개 학교에 학비 보조, 학교 시설 설치, 여교사와 보조교사의 직업 연수, 장애를 가진 학생 지원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CBRE EMEA 대표 마이클 스트롱은 "플랜과 이번에 맺은 제휴는 매우 중요하다. 교육이야말로 아프리카 어린이 특히 여자아이들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는 주요 열쇠다. 이런 중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르완다 대학살 20주년, 추모를 위해 젊은 영화감독들이 모였다.

르완다의 젊은 영화감독들이 르완다 대학살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이 영화제는 100일간 80만 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들이 잔혹하게 살해된 르완다 대학살을 돌아보기 위한 추모행사 중 하나이다. 올해는 "Remember, Unite, Renew(기억하고, 단결하고, 다시 일어서자)"라는 주제 아래 총 40편의 영화가 출품되었고, 이 중 3명의 젊은 감독이 찍은 영화 <선을 넘으며> (Crossing Lines), <무적>(Invincible), <후치 아칼리자 케자>(Hutsi-Akaliza keza)가 결승에 올랐다. <무적>의 감독 닉오감보는 "이 영화제는 대학살과 회해에 대한 서로 다른 시각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전했다. 플랜르완다 대표는 "젊은 감독들에게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주제에 대해 건설적인 토론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며, 회해 과정에 젊은이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며 영화제의 의의에 대해 말했다.



카메룬 내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난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내전으로 인해 3만 6천명 이상의 아이들이 이웃국가인 카메룬에 입성하고 있으며, 보건서비스와 영양 공급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플랜 인터내셔널은 전했다. 유엔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에 따르면 작년 12월부터 거의 8만 명에 가까운 난민들이 카메룬에 도착했고, 이 중 절반 이상이 10대를 포함한 어린이들이다. 국경에 다다른 아이들은 심각한 영양실조와 합병증 때문에 죽음 직전에 있으며, 매주 천 명 이상의 피난민들이 카메룬에 입성하고 있어 카메룬 내 주민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에 플랜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구호물품 지원과 초기 구호활동에 힘쓰고 있다. 서아프리카 긴급구호팀의 헨리노엘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 피난민의 수가 계속 증가해 구호품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한 명의 아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PLAN SHOP NEW ARRIVALS

플랜샵에서 준비한 사랑나눔 선물을 소개합니다

Plan Shop

지구촌 어린이들을 위한 가장 가치있는 소비! 사랑을 나누는 플랜샵과 함께하세요!



꽃말엽서 개당 3,000 won

- 후원아동 선물용
- 예쁜 꽃 일러스트와 꽃말이 적혀 있습니다.
- 총 4가지 디자인 (노란별 수선화, 은방울 꽃, 툴립, 토끼풀)

플랜 스테인레스 텀블러 21,000 won

- 심플한 디자인의 매력적인 플랜 로고 스테인레스 텀블러
- 보온/보냉 기능



소이캔들 할인 이벤트 24,000 won

♥후원아동에게 보낼 수 있는 선물

스티커세트 / 퍼즐카드 / 생일카드

그 밖에도 후원아동에게 편지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작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플랜샵을 방문해 보세요!



구입 및 문의 [플랜샵]

www.planshop.co.kr / 02.516.5107